


<div>살과살은도시 함께만드는인천</div>		<div>보도자료</div>		<div>수도권매립지 종료</div>	
		<div>배포일자</div>	<div>2022년 3월 17일(목) 총 2매</div>		<div> 환경특별시 인천</div>
<div>담당 부서</div>	<div>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div>	<div>담당자</div>	<div>• 119구조팀장 이강철 ☎ 870-3115 • 담당자 장태동 ☎ 870-3105</div>		
<div>사진(이미지)</div>	<div><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div>		<div>참고자료</div>	<div><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div>	
<div>보도일시</div>		<div>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119출동정보를 신고자 스마트폰 화면으로
… 소방 · SKT 민관협력으로 해결
- ‘T전화’ 앱 기능 추가, 18일부터 인천소방 시범운영 -

인천소방과 SK텔레콤이 손잡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T전화’에 119신고자에게 출동정보를 알려주는 119이(e)음콜 서비스를 추가하고 이달 18일부터 인천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119 이(e)음콜’ 서비스는 소방차량 소속을 신고자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로, 사고지역으로 출동 중인 소방대원(화재·구조·구급 등)이 정확한 현장 정보 파악을 위해 119신고자에게 전화할 경우, 119신고자가 출동 중인 소방차량 소속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선전화로 이뤄지는 소방민원 통화도 119 심벌마크와 소속기관을 표시하는 기능도 함께 담겼다.

SK텔레콤 가입자는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T전화’ 앱으로 다른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타 통신사 및 아이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T전화’ 앱을 다운로드 받

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발신정보를 알려주는 119이(e)음콜 기능이 신속한 사고현장 정보취득과 민원인과의 통화 실패율을 감소시켜 현장사고대응과 소방민원처리 분야에서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 인천지역에 시범기간을 거친 이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이(e)음콜 서비스는 4차 산업시대 트렌드에 맞춰 119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참고사진 < T전화 119이음콜 기능 추가 >

